

김준희의 마·아·클(마음으로 이어주는 클래식)-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아름다운 선율 끝없이 이어지고...섬세한 달콤함 곳곳에 드러내며

러시아의 낭만 파도처럼 몰아친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18'은 가장 많이 연주되는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찬 이 곡은 거대한 음악의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대작입니다.

웅장하고 격정적인 1악장, 섬세한 서정미의 2악장, 그리고 압도적 화려함을 보여주는 3악장까지 어느 한 곳 놓칠 수 없는 수려한 선율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영화 배경음악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뿐만 아니라 곳곳에 섬세한 달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낭만성, 매력적인 러시아적 감성 등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낭만주의자로 불리는 라흐마니노프는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이자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4세 때부터 피아노와 작곡을 교양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이 뛰어났고, 모스크바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17세에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이후 첫 교향곡을 발표했지만 초연에서 크게 실패해 음악계 흑명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을 앓으며 3년 이상 아무 작품도 쓰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러시아의 유명한 아마추어 음악가이자 의사였던 니콜라이 달 박사의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 회복을 시작합니다. 달 박사의 치료와 지원 덕분에 음악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모스크바의 사설 단체에서 오페라 지휘를 하게 됐고, 유럽·미국 등에서 연주 여행을 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지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찬사를 받은 그에게 런던 음악협회에서 관현악곡과 피아노 작품을 소개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라흐마니노프는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새로운 작품을 작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품을 쓰며 우울증이 재발하는 듯했지만, 달 박사에게 치료받으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00년부터 피아노 협주곡 2번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한 라흐마니노프는 자신의 피아니즘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세기의 역작을 탄생시킵니다.

'크렘린의 종'이라는 별칭을 가진 첫 번째 악장 도입부는 오케스트라 없이 피아노 독주로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피아노의 첫 코드는 세상의 모든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고요하지만 마치 무한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아르페지오의 분산화음과 함께 러시아 특유의 우울한 정서가 느껴지는 오케스트라의 첫 번째

주제의 주선율이 시작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전체 협주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긴장감과 해소가 반복되는 첫 악장은 라흐마니노프의 독특한 화성과 리듬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역시 서정성으로 가득한데,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대화는 마치 긴밀한 협상 같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듯하다가 곧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라흐마니노프의 작곡 기법은 피아니스트로서의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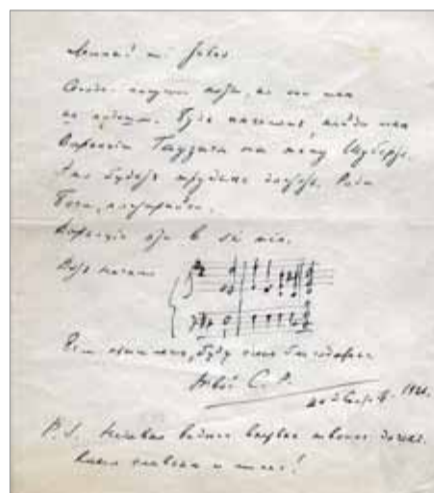
마지막 악장은 전반적으로 빠르고 경쾌한 리듬이 지배하면서 라흐마니노프의 화려한 피아니즘이 최고조에 달하는 악장입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교차하며 복잡하고 난해한 패시지들이 끊임없이 이어 집니다. 매우 역동적인 3악장은 환희를 느끼는 지점까지 끊임없이 달려나가다 더없는 장엄함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입니다.

여러 인상적인 특징이 조화를 이룬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며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라흐마니노프는 1906년 러시아 내전으

피아노 독주로 시작하는 도입부 '고요가 품은 무한한 에너지'

서정적 2악장, 시적인 표현...경쾌한 3악장, 화려한 피아니즘



다. 빠른 패시지와 넓은 도약 범위에서부터 섬세한 표현까지 피아니스트의 모든 역량을 요구합니다.

서정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악장은 느린 템포의 감미로운 선율로 시작합니다. 애절함마저 느껴지는 2악장은 감성 가득한 라흐마니노프의 시적인 표현이 돋보입니다. 피아노 선율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오케스트라는 더없이 따뜻합니다. 팝가수 에릭 카멘의 불후의 명곡 'All By Myself'(1975)에 절묘하게 사용돼 예술성을 증명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2악장은 영화, 드라마의 주요 장면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특히 영화 '히어 애프터'(2016)에 삽입된 2악장의 선율은 강렬한 감정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이 표현된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흐르는 선율은 세상을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아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그려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대하는 살아남은 자들의 감정은 상당히 보편적이지만, 영화 속 장면들은 특별한 음악적 언어를 통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며 현실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로 혼란한 시기에 잠시 독일 드레스덴으로 거처를 옮겨 활동합니다. 이때 교향곡 2번을 발표하여 피아노 협주곡 2번 못지않은 대대적 성공을 거뒀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라흐마니노프는 미국 데뷔를 위한 작품을 기획하고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발표하여 미국에서도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 라흐마니노프는 1910년부터 모스크바 극장과 마린스키극장 지휘자로 활동했고, 1917년 10월 혁명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여유로운 여생을 즐겼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작곡가의 음악적 회복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곡이자 모든 피아니스트는 물론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24세 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라흐마니노프는 이후 음악가로서 정상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19세기의 지극한 낭만성을 20세기까지 무리 없이 끌고 와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위치에 자리매김한 라흐마니노프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담긴 이 곡은 선우예권, 손열음, 임운찬, 조성진 등 우리나라의 젊은 연주자들의 성공적인 연주로 많은 팬의 가슴을 적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 1926년경 작성된 라흐마니노프의 편지(왼쪽). 사진=위키백과 ▲ 라흐마니노프. 사진=스타인웨이 홈페이지

필자 김준희는 연주와 강연으로 '대중의 클래식'을 꿈꾸는 피아니스트다. 저서로 『클래식 음악 수업』 『클래식, 경계를 넘어』가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가르치고 있다.